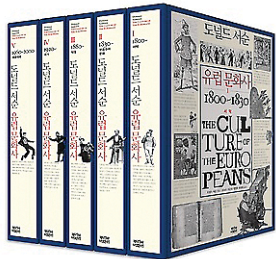


풍부하고 흥미롭다 200년 유럽문화 흥망성쇠



‘유럽문화사’ 도널드 서순 지음

따분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5권짜리, 279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 손을 대기도 쉽지 않다. 책을 넘길수록 이런 선입견은 점차 없어진다. 그만큼 흥미롭고 쉽게 읽히는 에피소드가 적지 않아 재미있게 읽힌다. 책은 영국 런던대 유럽비교사 도널드 서순이 1800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 러시아, 미국 문화 양식의 변천사를 담아냈다. 유럽인 대부분 읽거나 볼 수조차 없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이냐 동네 교회나 1년에 몇 번 열리는 축제에서 듣는 게 전 언어로 번역됐다. 빅토르 위고는 국민 작가로 추앙받으면서도 수입을 극대화하기로 작정한 직업작가다. ‘1800년대 파리오페라극장의 가장 선망받은 좌석은 무대 위에 있는 여섯 개의 박스석이었다. 무대 좌우 가장자리에 있는 3층짜리 좌석인데, 무대가 잘 보여서가 아니라 다른 관객들이 모두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책을 훑어보면서 흥미롭게 읽힌 내용들이다. ‘유럽문화사’라는 역사서인듯한 제목만으로는 어쩐지

미롭다. 1820년 월터 스코트의 역사소설이 탄생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해리포터 시리즈’도 접할 수 있다. 흥보 예산이 영화제작비와 맞먹는 스킵버그의 ‘취라기 공룡’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 하이든의 교향곡 83번에 ‘악타’이라는 제목이 붙었던 사연도 발견할 수 있다. 책에서 저자가 주목한 ‘200년’은 문화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다. 5권의 책도, ‘서막’(1800~1830)과 ‘부르주아 문화’(1830~1880), ‘혁명’(1880~1920), ‘국가’(1920~1960), ‘대중매체’(1960~2000)로 나뉘어 이 시기 등장한 온갖 종류의 문화 산물을 소개하면서 모방과 변형되고 혁신을 거쳐 인기와 상징적 가치를 누리다가 새로운 형식에 밀려 쇠퇴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서막’과 ‘부르주아 문화’에서는 책·신문·이미지·악보 등 인쇄된 텍

스트와 공연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문화를 다뤘고 ‘혁명’에서는 문화 확산에 혁명을 일으킨 발전들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편에서는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담았고 ‘대중매체’에서는 TV 등장부터 TV가 영화에 미친 영향, 대중음악의 폭발적 성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단순 에피소드 나열 수준에 그친 것도 아니다. 한 시대 ‘고급’ 문화가 다른 시대에 ‘대중’문화로 바뀌는 과정과 문화적 흥망 성쇠를 섬세하게 다루는 한편, 거시적 분석도 내놓는다. 책 말미에 저자가 남긴 “고급 문화든, 저급 문화든, 문화가 없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보다 훨씬 야만적인 세상이라는 것, 이것뿐이다”는 말은 문화가 경쟁적인 시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뿌리깊은나무·각권 2만8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상가집 다녀오면 왜 소금을 뿌렸을까?

‘작지만 큰 한국사, 소금’ 유승훈 지음

어린아이기 오줌싸면 이웃집 소금을 받으러 보내고 이사갈 집 방마다 소금과 쌀을 뿌리는가 하면, 조문을 다녀온 가족에게 소금을 뿌린 뒤 집에 들어오게 한다. 왜 소금이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물질로 사용되거나야 노제 치료제 역할을 하게된 걸까. 역사민속학자인 유승훈씨가 내놓은 ‘작지만 큰 한국사, 소금’은 소금으로 본 한국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짜게 본 역사, 간을 친 문화’라는 부제에 어울리게 고려, 조선을 거쳐 일제 강점기와 현대까지 소금의 경제·문화적 함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풀어낸다.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 정도로 여기는



소금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는 예가 있다. 저자는 지금이야 짠 음식이 몸에 해롭다 하여 찬밥 신세가 됐지만 고대 군대 병사는 월급으로 소금을 받기도 했고 제염업은 지금의 IT산업처럼 유망 업종으로 주목받았던 소금 얘기를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응(1762~1836)의 대표저작 ‘경세유표’를 들춰 그가 염세제 개혁으로 고민했던 흔적과 고려 충신왕(1275~1325)때 시행된 각염법의 폐단, 소금을 둘러싼 조정 관아의 갈등, 염전의 노동으로 하루를 연명한 염부(鹽夫)의 삶 등을 ‘소금에 걸린 한국사’로 엮어냈다. <푸른역사·2만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생생한 현장...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진한 감동

‘프로테스트!’ 존 심프슨 지음



흰색 줄무늬 와이셔츠에 피가 흥건히 젖은 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남자. 엉덩이와 발이 피범벅이 된 채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엎드려 있는 남자. 프랑스 아 로송(Francois Lochon)이 찍은 한 장의 사진은 국가가 지난 1980년 저지른 광주민주화운동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프로테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와 항거의 현장을 담은 사진들을 한 데 엮은 ‘사진으로 보는 역사책’이다. 존 심프슨이 글을 쓰고 존 새도비·롭 스토다트·마즈 니센 등 세계적인 포토저널리스트 20명이 세계 곳곳

의 시위 현장에서 찍은 생생한 사진 200여 장을 담았다. 부제가 ‘사진으로 보는 역학과 반항의 현대사 65년’인 만큼 지난 1945년 10월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지지 시위부터 플란트 자유노조운동(1980년),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탠안 광장 민주화시위(1999년), 지난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아랍의 봄’ 시위까지 격동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진을 접하게 되면 시민들을 상대로 자행된 억압과 폭정이 한층 강렬하게 다가온다. <공명·4만8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난한 사람이 더 비만... 기업의 ‘음모’

‘강요된 비만’ 프란시스 들프슈외 지음

‘강요된 비만’은 빈곤 국가나 개발도상국의 비만 문제를 거대 기업들의 ‘음모’라고 고발한다. 책은 영양은 형편없고 ‘텃 빈’ 열량만 제공하면서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크 푸드나 싸구려 가공식품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경제적 하층 계급의 비만 문제를 꼼꼼히 살펴본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만든 설탕, 곡물, 기름이 소비되지



않은 채 개발도상국으로 떠났다가 지면서 국가별 ‘영양 불평등’ 현상도 심화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인 보건영양학 전문가인 프란시스 들프슈외와 과학 전문가인 엠마누엘 모니에 등은 비만을 하나의 ‘전염병’으로 지목하고 세균의 양이 늘어나더라도 재료가 비중에 거의 울려가지 않는 등 푸짐해진 ‘세트’ 메뉴에 숨어있는 진실을 풀어낸다. <거름·1만6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화재, 알고 보면 더 쉽다

‘팔만대장경도...’ 전병철 지음

아는 만큼 보인다.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빨래판도 잘 보면 팔만대장경이다’는 문화재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를 알려주는 책이다.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 전병철씨가 문득 역사 이야기를 나누다, 궁금증이 생겼던 역사 용어와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엮었다. 경주에 있는 무덤 이름은 왜 그렇게 다른지부터 양귀비와 장희빈의 이



름은 귀비와 희빈인지, 태왕과 태왕은 어떻게 다르고 학장시절 그렇게 외위되지 않은 불상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등 역사서를 읽을 때 궁금해지는 단어, 개념, 주제, 줄거리를 총정리했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와 사진, 그림을 곁들여 풀어냄으로써 역사는 외우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살림터·각권 1만6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하루키의 젊은 시절 감성을 엿본다

‘하루키 에세이 걸작선’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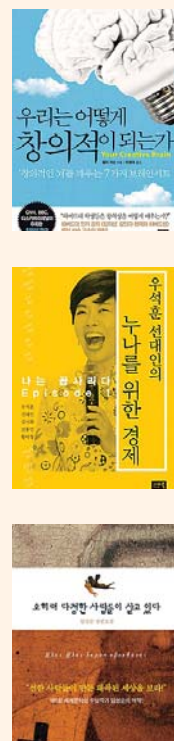


‘노르웨이 숲’, ‘1Q84’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는 사람을 잡아끄는 매력 있다. ‘세일러복을 입은 연필’ 등 5권으로 구성된 하루키 에세이 걸작선이 출간됐다. 하루키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즈마루의 유쾌한 그림과 어우러진 작품집으로 하루키의 젊은 시절의 감성을 엿볼 수 있다. ‘세일러복을 입은 연필’은 고양이, 야구, 달리기, 맥주 등에 대한 50편의 에세이를 모은 책이고 ‘발렌타인데이의 무발렌데이’는 ‘시티 워킹’이라는 주제로 학생 시절부터 작가가 된 지금까지 그가 겪은 도쿄 생활의 단상을 담았다.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에는 재즈, 록, 팝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짙은 글과 도시 일상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으며 소설 ‘양을 둘러싼 모험’부터 ‘노르웨이 숲’을 집필할 당시에 쓴 글을 모은 ‘물하고 와일드한 백일몽’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에세이를 만날 수 있다. ‘해 뜨는 나라의 공장’은 조금 특이한 컨셉의 에세이 집이다. 인체 표본 공장, 지우개 공장, 가발공장, CD 공장 등 그가 호기심으로 고른 7개의 공장 탐방에 대한 이야기다. 일종의 공장이라고 해석한 결혼식장 방문기는 특히 유쾌하다. <각권 1만28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간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글 쓰는 요리사로 알려진 박찬일 셰프의 음식 에세이.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닭백숙부터 시장바다 좌판을 벌인 아주머니가 등에 얹힌 아이에게 먹여주던 국수, 남도의 해장국집과 한정식 풍경 등 소박한 음식 한 그릇에 녹아 있는 추억을 맛깔나게 풀어냈다. 박찬일의 ‘그 남자의 집’, ‘꽃베레코 에코의’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법’ 등 책에서 발견한 요리 이야기도 재미있다. <푸른숲에세이·1만2000원>
▲무엇을 먹을 것인가=미국 코넬대 명예교수인 영양학 전문가 폴린 캄벨이 동물성 단백질에 숨겨진 ‘반전’을 파헤치고 있다. 20여 년에 걸친 방대한 연구 결과 단백질이 사실상 몸에 걸리는 신호등을 켜다 켜다 하는 ‘암 발병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육류·가금류·생선·계란·우유 등 동물성 단백질로 요리한 식단이 오히려 암 발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열린과학·2만원>
▲소군/천황/국민=후지이 조지 전 교토대 대학원 교수 등 일본의 중진 역사학자 14명이 내놓은 일본사 개설서다. 16세기 후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각축을 벌인 전국시대부터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에 이르는 일본 사회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일합방, 민주사변 등 주변국에 끼친 피해 상황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는 등 근현대사 서술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서해문집·2만5000원>
▲우리는 어떻게 창의적이 되는가=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엘리 카슨이 뇌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뇌를 깨우는 ‘특정 상태’, 이른바 ‘브레인셋’을 7가지로 정리하고 일상에서 그 상태로 들어가 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연갈·이성·상상·습수·변형·평가·흐름 브레인셋 등을 통해 창의적인 뇌를 발휘하는 법을 소개한다. <RHK·1만3000원>
▲누나를 위한 경제=우석훈·선대인·김미화·김용민·황덕창이 콤파스트 ‘나는 꿈수다’의 10회분을 글로 정리한 책. 한·미 FTA의 문제점을 비롯, 가계 부채, 청년 실업과 대학생 등록금 문제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을 짚는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경제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시사인북·1만3000원>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세계 문화상 수상자인 임성순의 세번째 장편소설. 세계문화상 수상작인 ‘컨설턴트’와 올해 초 출간한 ‘문명연의 위험해’에 이어 ‘자본주의의 은유로서의 ‘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보는 ‘회사 3부작’ 시리즈의 완결작으로, 가상의 회사를 내세워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15년 전 내전이 벌어지던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각각 선교 중인 젊은 성직자와 봉사 활동 중인 젊은 의사가 점차 변화하는 모습이 긴장감 있게 그려진다. <살림터·1만2000원>



▲추머니취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장이 이야기=노벨문학상을 수상한 T.S. 엘리엇이 어린이를 위해 쓴 시집. ‘껌 딱지 위해 벌벌부려요’, ‘극장 분기지 이야기’, ‘2인조 도둑 문고제리와 톱질터져’ 등 재미있는 이름의 고장이 등장해 눈길을 끄는 한편, 영웅 서사시, 공연 소개 등 다양한 형식의 시들이 선보인다. <시공주니어·1만원>
▲더위야 썩 물렸거든! = 자연을 이용해 지혜롭게 더위를 쫓았던 조상들의 여름나기 방법을 담은 그림책. 체면 때문에 웃고름조차 풀지 못하는 양반 김생원과 체면보다는 몸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싶은 마당쇠 길동이의 여름나기 대결이 재미있게 펼쳐진다. <웅진주니어·1만원>
▲방과 후 운동장 교실=아무도 없는 텅 빈 운동장에서 해가 저물도록 혼자 노는 아이가 없는 세상과 학교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혼자 노는 아이 성우를 괴롭히고 감시하던 아이들이 나중엔 함께 놀고 함께 웃는 친



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이명랑씨의 글에 유재인씨가 그림을 그렸다. <스폰북·9800원>
▲안도현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요=시인 안도현씨가 지금까지 발표한 동시, 그림책, 동화, 일기, 희곡 등에서 뽑아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큰 소리로 읽기, 실감나게 읽기, 또박또박 떠올리며 읽기 등 학습 능력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도움이 되는 낭독법을 알려준다. <토도북·1만5000원>
▲노자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 노자의 사상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엮어냈다. 물이 부드러운 이유를 이긴다는 ‘상선약수’, 그릇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쓰일 수 있다는 ‘당기무유기지용’(當其無有器之用), 순환의 이치를 노래한 ‘반자도지동’(反者道之動)편을 가려 뽑아 엮었다. <학교재·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